

# 박근혜 대통령 당선

## ■광주·전남 정치권 영향은



**강추위 속 투표행렬**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 19일 광주시 북구 운암2동 제4투표소인 중앙여고 축호관에서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정권교체 물거품... 민주당 일당 독점 제동

## 권력욕 앞선 '친노' 안후보와 단일화 갈등

## 변화·개혁 없는 민주당 심판론 부상할 듯

제18대 대선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광주·전남지역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80%에 육박하는 투표율 속에 민주당합당 문제인 후보에 90%에 가까운 '물표'를 몰아줬지만, 결국은 선거 패배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친노 중심'의 민주당에 대한 허탈감과 실망감이 향후 지역정치에 구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유권자들이 애초 '친노'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음에도, 선거에서 민주당 문제인 후보에 대한 '물표'를 몰아준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과 정치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는 때 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지역·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는 반(反) 새누리당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문제인 후보로의 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지면서 그토록 지역민이 열망했던 정권교체가 물거품이 돼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분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더 없는 기회에도 변화와 개혁 없이 오로지 '바람'만을 믿고 전략 없는 선거로 일관, 대선 패배를 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가 향후 '민주당 일당 독점'이라는 지역정치 구도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광주·전남 유권자들은 문제인-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더욱 두터웠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호남 출대에

대한 서운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정권교체'라는 큰 과제를 실현해낼 강력한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갑작스럽게 등장한 '친노 그룹'이 유리한 정치상황에서 4·11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여당에 대해 협박함으로써 '친노 중심'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을 더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호기였는데, 친노가 결국은 모두 말아먹고 말았다"고 원망 섞인 푸념을 쏟아내기도 했다.

실제로 4·11 총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친노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가 또 다시 들어섰고, 이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친노 그룹'의 맹행격인 문제인 후보를 대선 후보로 강하게 밀면서 당내 갈등이 벌어졌다. 뒤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도 '한치의 양보' 없는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결국은 '친노'가 권력욕만 앞세우는 바람에 정권교체를 대과업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다.

지역 정치권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긴 했지만,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선을 '먼 산 보듯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장병완·강기정 의원, 전남에서는 박지원·이낙연·주승용·유운근 의원 등 일부만이 선거운동에 적극 나섰을 뿐 일부 의원들의 행보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선거운동에 적극 나선 일부 의원들마저도 향후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끝없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의 선거 패배 책임론이 대두하고, 향후 급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계 개편에 따라 지역 정치권 판도도 급속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권교체'를 간절히 열원해온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이 향후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패배 책임 민주당 분당 가능성

## ■대선 이후 정국 기상도

## 친노세력 한계 책임추궁 차, 예산안 처리 첫 관문

18대 대통령선거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대선 후 정치권은 야당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합당은 문제인 후보의 패배로 거센 쇄신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를 필두로 이번 대선에 통해 '화려한 부활'을 꿈꿨던 당내 친노(친노무현) 세력이 명확한 한계를 보여준다면 구(舊)민주당과 김근태(GT)계, 시민사회계 등 비노(비노무현) 세력으로부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패배 직후 당이 분당에 빠질 경우 국민으로 받아들일 때에 당장 갈등이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 새 지도부 선출이 예정되어 있어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안철수 전 대

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 전 후보가 독자 신당 창당의 길을 갈 경우에는 민주당 내 세력 재편 과정에서 민주당이 분당을 겪는 등 정계개편이라는 비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문 후보의 패배로 '분당(分黨)'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안 전 후보가 독자 행보를 택한다면 친노를 제외한 상당수 인사들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친노세력은 잠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내년 1월 정당대회에서는 또다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친노세력과 가까운 비노인사를 내세워 당 대표로 옹립하려 할 것이라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이 표면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결집이 이뤄진 상태에서 박 후보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친박을 중심으로 한 협력구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밖으로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 장악력을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정국 주도권을 쥐고 향후 정국에서 야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박 당선자가 후보 시절 '국민통합'을 강조한 만큼 가시적인 통합 노력이 나오겠지만 야권과의 관계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든가 일반적인 전망이다.

대선 후 여야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관문은 국회 예산안 처리다. 민주당의 경우 당선자와의 2위 득표자 간의 표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을 들고 나와 여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를 저지하려 할 것이고 여당은 박 후보의 확고한 국정 장악을 위해 야당의 양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 당선자가 소동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든가 대선 과정에서 보혁 갈등이 첨예화한 상황이어서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든가 예상은 일반적이다.

# “그래서 대통령 되려한다” “박후보 떨어뜨리기 위해”

## ■대선 말... 말... 말...

대선 후보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대장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유세전쟁을 벌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한 말을 많이 남겼다.

◇박근혜  
▲호남의 상처와 눈물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 이 되겠다.(12월5일 호남 유세에서)  
▲지금 야당 후보는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던 실패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다.(11월27일 대전 유세에서) 문 후보를 겨냥하며 ▲그동안 노무현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 실패했다. 저는 과거 정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정부를 만들겠다.(11월30일 부산 유세에서 '민생정부분'을 강조하며)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12월16일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을 비판하며 박 후보에게 '그때 무엇을 했나'라고 묻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이루겠다.(12월18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12월18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11월27일 부산 유세에서) ▲이명박 정부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행정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행정 정부'의 공동 책임자이다.(11월28일 대전 유세에서) ▲이정권의 바깥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 후보 아닌가.(12월1일 원주 중앙시장 유세 연설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시즌2'이다. 박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계자다.(12월11일 경기 의정부 앞 유세에서)  
◇안철수  
▲지금 대선은 국민 여파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12월3일 공평동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산식에서 정치권에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과정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이거도 절반의 마음이 돌아선다. 패자가 축하하고 승자가 포용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12월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야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비판하며)  
◇이정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 기필코 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12월4일 대선후보자 첫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가 '토론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묻자)  
/연합뉴스

# “승자는 포용 패자는 승복... 어떤 결과건 기쁘게 받아들이길”

## ■안철수 출국 메시지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투표를 마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짧게 인사한 뒤 손을 흔들고 출국장 게이트 안으로 홀로 들어갔다.

안 전 후보는 미국에서 한 두달 가량 체류하며 향후 행보를 구상할 계획이다.

안 전 후보는 출국 직후 유민영 대

변인이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선거에서 이긴 쪽은 패자를 포용하고 진 쪽은 승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며 “주인에게 승패는 없고, 어떤 결과건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정서코칭"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1월 19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1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2월 2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제출서류: 입학원서,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  
교육비: 28만원 (자격증비 별도: 정서코칭 2급 5만원 /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대학생, 목회자 부부 등 특시 특별 장학혜택  
입금계좌: >> 동월 355-0012-1260-13 (예금주: 사) 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시 교육비 5만원 할인혜택(단, 중복할인 불가)

특 전: 3단계 교육 후 보수교육(4시간\*4회) 이수시 아동가족심리상담사2급자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취득  
※수강료, 자격증비 별도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www.ayce.co.kr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후원 | febc 광주공동방송  
www.febc.net

---

###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1월 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